

# “물 들어올때 노 젓자”... 완성차, 내수회복에 신차러시 예고

현대차 4세대 투싼 출시 준비  
기아차 5년만에 카니발 풀체인지  
쌍용차  
티볼리 에어·G4렉스턴 부분변경



현대차 더 뉴 싼타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시장 잡기에 집중한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판매량이 증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세 인화와 신차 출시 효과로 얼어붙었던 국내 소비 심리를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디자인 개선과 상품성을 높인 신차를 잇따라 출시한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잇따라 신차 출시를 예고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상반기 올 뉴 아반떼 등을 선보인 데 이어 하

반기는 2018년 2월 출시한 4세대 싼타페의 부분변경 모델을 시작으로 신차 러시를 이어간다. 현대차는 신형 싼타페에 대해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신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실내 공간은 물론, 주행 성능과 연비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디자인은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인 ‘센슈어스 스포트니스’가 적용됐다. 그릴이 수평으로 넓게 배치돼서 수직의 ‘T’자형 주간주행등이 대비를 이루며 강한 인상을 준다. 옆부분엔 기존의 날렵한 선에 더해 새로 바뀐 20인치 휠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내부는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현대차는 이번달 더 뉴 싼타페 2.2 디젤 모델을 선보이고, 하반기에 2.5터보 가솔린 모델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는 하반기 내수 시장의 핵심 모델로 4세대 투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2004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투싼은 3세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대 넘게 팔렸다. 그만큼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다. 4세대 모델은 디자인은 물론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자체를 완벽하게 바꾼

다. 겉모습은 지난해 LA모터쇼에 공개했던 콘셉트카 ‘비전T’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카니발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 1998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20년의 세월을 거쳐 3세대 모델까지 진화한 ‘카니발’은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지난 2015년 출시한 3세대 카니발은 올 하반기 4세대로 진화한다. 최근 대형 SUV 인기로 미니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아차는 5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출시하는 카니발은 9인승 모델에 집중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7인승, 4인승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자가용에서 승객을 해결하는 ‘차박(차+숙박)’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과, 최근 넉넉한 실내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경영위기에 처한 쌍용차는 올 하반기 티볼리 에어와 G4 렉스턴 부분변경 모델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인다. 2016년 출시된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의 확장판으로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 젊은 고객들에게 주목받은 모델이다.

티볼리 에어는 국내 출시 당시 한 달 만에 계약 건수가 5000대를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쌍용차는 티볼리 에어 출시를 기점으로 내수는 물론 수출 물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또 G4 렉스턴 부분변경 모델도 선보인다. 앞뒤 디자인을 소폭 변경하지만,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물론 ‘인포콘’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코란도 플랫폼 기반의 중형 전기차도 이르면 올해 말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차량 구매시 소비자들은 가성비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기 보다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은 ‘가심비’ 모델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출시되는 신차를 보면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쉐보레, ‘2020년형 볼트 EV’ 사전계약 실시

동급 최장 주행거리 인증  
1회 충전으로 414km 주행  
최고출력 204마력 발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가 동급 최장 주행거리를 인증 받은 ‘2020년형 볼트 EV’를 공개하고 9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쉐보레는 볼트EV의 2020년형 모델이 기존 대비 31km가 늘어난 414km로 동급 최장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볼트EV는 뛰어난 효율과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켰다. 업그레이드된 66kWh급 대용량 신규 배터리 패키지는 LG화학이 공급하는 288개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로 구성돼 최적의 열 관리 시스템으로 운용, 효율과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동급 전기차 중 최장 1회 충전 주행거리인 414km 실현은 물론, 급속충전 시 1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이 가능하다.



쉐보레 2020년형 볼트EV.

이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150kW급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고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초 이내에 주파하는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구현했다. 외장 컬러는 트레일블레이저에 적용돼 호평 받은 이비자 블루와 새롭게 추가된 미드나이트 블랙 등 총 6개의 외장 컬러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0년형 볼트EV는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용량 증가와 추가적인 상품성 개선에도 가격 인상 없이 판매가를 동결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제외한 볼트EV의 가격은 개세 인하분을 적용해 ▲LT 4593만원 ▲LT 디럭스 4693만원 ▲프리미어 481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 전기차 구매 부담 ‘뚝’... 하루에 만원 미만

현대차 ‘엘리트 할부 프로모션’

코나·아이오닉 일렉트릭 구매 지원

현대자동차가 선수금 없이 하루 1만원 미만 납입금으로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부담 없이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엘리트 할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엘리트 할부 프로모션’은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구매하는 개인·개인사업자에게 ▲선수금 제한 없이 최대 55%까지 차량 가격 유예 ▲최저 1.9% 금리 적용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구매 프로그램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및 할부 납입금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 ‘엘리트 할부 프로모션’을 이용해 코나 일렉트릭 모던 트림을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 4690만원(개별소비세 1.5% 기준)의 55%(2570만원)는 36개월 할부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달까지 유예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1270만원(서울시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850만원)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는 2.5% 저금리(M할부 이용 시 1.9% 금리)를 적용받아 한 달에 약 30만원, 하루 약 1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 포스코에너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MOU

### 환경·에너지분야 벤처기업 육성 지원

포스코에너지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환경·에너지 분야 신사업 발굴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8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반의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에너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유망 벤처기업의 사업성과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적절한 투자와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기

술기반 에너지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 공동 지원이 필요한 유망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과 자문 ▲기술개발 인프라 제공 ▲직·간접 투자를 통한 기술 상용화 ▲국내외 시장 발굴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한국조선해양, 900억 규모 PC선 건조계약

읍선 1척 포함... 추가 수주 기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올해도 PC선(석유화학 제품운반선) 분야 수주리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약 900억원 규모의 5만톤급 PC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읍선 1척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PC선은 길이 183m, 폭 32m, 높이 10m 규모로, 오는 10월

울산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를 시작해 2021년 하반기 고객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서만 총 19척의 PC선을 수주하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에도 총 40척의 PC선을 수주하는 등 이 분야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지금까지 700척 이상의 PC선을 건조해 선주사에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 수주잔량인 145척의 약 45%에 해당하는 65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